

올림픽을 빛낸 말일성도들

제24회 서울 올림픽!

우리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전인 서울 올림픽이 지난 10월 2일 열린 16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림픽은 공식 개막일인 9월 17일 훨씬 전부터 문화 예술 축전의 막을 올리면서 시작이 되어 세계 각국의 유수한 예술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문화의 진수를 선보였다. 각종 경기에도 전 세계 160개국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제각기 기량을 겨루어, 많은 신기록이 쏟아지는 등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서울 올림픽에 국내외의 많은 말일성도들이 참가하여 그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본다.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말일성도 선수들

160개국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위하여 기량을 겨루는 올림픽경기에 피부의 색깔과 국적이 다른 많은 선수들 중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 선수들, 그들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물론 선수들이다.

이번 올림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일성도 선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헨리 마쉬 : 미국 육상(장애물 경주) 선수
- 다그 파딜라 : 미국 육상(5천미터) 선수
- 에드 아이스톤 : 미국 마라톤 선수
- 마크 풀러 : 미국 레슬링(그레코로망) 선수
- 트로이 태너 : 미국 배구 선수
- 마이클 에반스 : 미국 수구 선수
- 칼 킬맨 : 캐나다 농구 선수
- 보 구스타프손 : 스웨덴 경보 선수
- 투알라우 팔레 : 통가 권투(헤비급) 선수
- 파라코 바카 : 통가 권투(미들급) 선수

이들 선수중에는 이번 올림픽에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들도 있다.

헨리 마쉬 형제는 세번이나 세계 기록을 경신한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난 LA올림픽 때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아깝게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다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4번 씩이나 올림픽 출전권(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부터)을 탄 집념의 선수이다. 이번 서울 올림픽에서는 아깝게도 6등에 그쳤다.

다그 파딜라 형제는 31세로서 1985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한 세계적인 선수이다.

에드 아이스톤 형제는 처음에는 10,000미터 선수로 더 유명하였으나 최근 마라톤으로 전향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다.

칼 킬맨 형제는 캐나다 농구팀의 가드로서 재빠른 몸놀림과 정확한 슈트로 캐나다가 8강전에 진출하는데 공헌을 한 유능한 선수이다.

보 구스타프손 형제는 지난 LA올림픽 때 은메달을 딴 선수로서 끈기와 집념이 필요한 경보를 통하여 자신을 이겨내는 우수한 선수이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부상의 후유증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비록 이들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말일성도로서의 그들의 간증을 한국의 말일성도들에게 전하는데 한치의 손색이 없었다.

이들 선수들은 지난 9월 24일 저녁 바쁜 경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독신성인들과 함께 노량진 와드에서 열린 우정의 밤에 참석, 국적을 초월한 우정과 간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상태 서스테이크 부장 보좌의 감리로 가진 이 모임에는 이들 선수와 가족들이 참석, 독신성인들이 준비한 노래와 무용을 즐겼다.

발표 순서가 끝난 후 고 원용 형제의 통역으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개와 간증을 들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업에 마쳤으며, "우리의 생애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십시오"라고 간증한 헨리 마쉬 형제의 말씀처럼, 비단 운동에서만 성공한 선수들이 아니라 신앙으로도 성숙된 훌륭한 면을 보여 주었다.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거나,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똑같은 복음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실감한 이 날 밤의 모임은 올림픽이 한국 성도에게 주는 축복과 확신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우정의 밤에 참석한 선수들



'88 서울국제민속축제

'88 Seoul International Folklore Festival

서울 국제 민속 축제에 참가하여 전국을 누빈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

서울 올림픽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한국 국제문화협회, 한국방송공사와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88 서울 국제 민속축제에 미국대표로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이 참가하였다. 전 세계 12개국에서 초청된 민속무용단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성화봉송에 따라 전국에서 공연을 가졌다.

9월 10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무용단은 한국에 오기전에 이미 8월 12일부터 필리핀,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4개국 공연을 마쳤다.

24명의 무용수와 6명의 악단, 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 중 단 한 명만 무용을 전공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공이 다른 순수한 아마추어 팀이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11일 서울 신당와드에서 가진 노변의 밤에서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주제로 훌륭한 말씀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폴란드, 세네갈, 터키와 함께 한 팀이 된 브리감 영 대학교 무용단은 9월 12일 부산 KBS홀을 가득 메운 5천 여명의 관중앞에서 화려한 의상과 풍부한 춤으로 미국 전통춤을 소개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어 9월 13일에는 대구로 옮겨 대구 시민 회관에서 역시 성공적인 공연을 가진 후, 15일에는 성화가 도착하는 의정부에서 3만 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화맞이 문화 축제에 참가하였다.

9월 16일에는 서울시 주최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 올림픽 전야제에 참가하고, 드디어 9월 17일 개막식 당일에는 개막행사 공연에 참가, 이번 내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공연시 그 지역에서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하여 지방 유지 및 사회 저명인사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선교활동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공연을 계획하고 단원을 이끈

렉스 배링톤 형제는 "이번 축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치, 경제, 지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이해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화가 봉송되는 지역과 올림픽 경기장에서 느꼈던 그 감동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미주 지역을 대표하여 내한한 브리감 영 대학교 민속무용단이 아름다운 춤과 음악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교회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자랑스럽다고 하겠다.



브리감 영 대학교 무용 단원들

文化에겐다

「시집가는 날」

韓國오페라 세계무대 오른다

서울시립오페라단 10월초공연

伊語아리아... 在外성악가 대거참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장악기 앙블락은 물론 오페라 극단까지 참가한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0월 초에 서울에서 「시집가는 날」을 공연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987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연하는 첫 번째로, 서울시립오페라단은 「시집가는 날」을 통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예정이다.

말일성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워진 서울 올림픽 개막 오페라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날」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장악기 앙블락은 물론 오페라 극단까지 참가한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0월 초에 서울에서 「시집가는 날」을 공연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987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연하는 첫 번째로, 서울시립오페라단은 「시집가는 날」을 통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말일성도 목회자이자 작곡가인 김신환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고,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0월 초에 서울에서 「시집가는 날」을 공연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서울시립오페라단이 1987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연하는 첫 번째로, 서울시립오페라단은 「시집가는 날」을 통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예정이다.



김 신환 형제

서울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날인 9월 16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한국적인 줄거리를 소재로 한 오페라 “시집가는 날”이 초연되었다.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울 올림픽을 기해 한국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오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페라 작곡의 거장 잔 카를로 메노티에게 작곡을 의뢰한 「시집가는 날」은 서울 시립 오페라단에 의해 공연되었으며 총감독에는 김 신환 형제(서울 시립오페라 단장)가 맡았다. 고 김호직 박사의 아들인 김 신환 형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이기도 하며, 서울 시립

오페라단을 이끌고 이번 공연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는 또 한 사람의 말일성도가 활약하였는데, 그는 이번 공연을 위하여 이태리에서 귀국한 바리톤 최 현수 형제이다. 그는 이 공연에서 관찰사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최현수 바리톤

김신환 단장

최형제는 이태리에 체류하면서 그동안 스칼라 가극장 아카데미학교를 비롯하여 밀라노 베르디 음악학교, 오지모 음악학교, 베르곤찌 아카데미를 졸업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베르디 국제 콩쿠르 1등을 위시하여 8개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의 베르디의 리콜렛토, 가면 무도회,

춘회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였고, 이태리 여러 곳에서 순회공연도 가졌다.

이번 올림픽을 기해 초연된 세계적인 오페라에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 신환 형제와 최 현수 형제는 자신의 성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일성도의 기쁨인 것이다.



최 현수 형제

성도의 빛 / 88 11월호 교회 및 지역 소식

말일성도 자원 봉사자들

올림픽은 선수들과 관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경기와 진행이 순조롭게 되기 위하여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경기장 안팎, 선수촌, 호텔 등 여러 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수 많은 자원 봉사자들 중에는 많은 말일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파악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남 와드의 이 영진 자매, 신길 와드의 최 민규 형제, 우드 형제, 개봉 와드의 엄 건용 형제, 강서 와드의 조 정순 자매, 미아 와드의 김 혜경 자매, 화곡 와드의 이 세인 자매 등이다.

이 중에서 귀환 선교사로서 다시 한국에 와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드 형제의 간증을 소개한다.

아낌없는 봉사

조 우드



나는 이번 서울 올림픽에 자원봉사요원으로 참가했던 대학생이다. 나는 작년 10월달에 자원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 1년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나는 기자촌에 있는 보도본부 등록센터에서 통역을 했다.

나는 아침 9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연속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루 15~18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못자고 기자촌에 있는 Apt에서 묵었다. 학교에 가는 시간과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도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은 한달이나 수업을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쁜것은 아니었다. 나는 매일매일 수백 명의 기자들과 대화를 한다. 세계의 유명한 신문사와 방송국을 운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중요하리라 생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입국해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등록센터이다. 기자들은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센터에서 AD카드를 받아야 한다. 기자들은 여러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등록센터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사이야서 2장 17절의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손님을 대할 때에도 이 말을 생각했다.

한달 동안 20여개가 넘는 나라의 기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한국이

참으로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보다 잘 이해하고 또한 한국에서 거의 4년 동안 살았고 선교사업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알기도한다. 이렇듯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고 무척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내가 기자들을 도와 주면서 그들의 미소나 고마운 표정을 볼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달콤한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의 피부 색깔이 하얗거나 노랗거나 검었거나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배고픈 것을 잊을 수 있었고 학교 수업이나 하숙비 등, 여러 문제들이 모두 의미없는 것이 되었다. 또한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각도 버리게 되었다. 그러한 모든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물몬으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아낌없는 봉사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자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그마한 실천이었음을 간증한다. *

도날드 조 우드 형제는 현재 서울대 국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 소속이다.

정정합니다.

10월호 교회 및 지역 소식란 1페이지에 실린 간증의 필자를 서 수열 자매에서 서 순열 자매로 정정합니다.